'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코로나19 피해상인 지원

서울 성동구, 공공근로 인력 긴급투입…6월 말까지 추진

"민간 배달업체 이용 수수료 절약…전화한 통 간편 주문"

서울 성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양대 앞 상점가에 공공근로 인력을 긴급 투입해 배송서비스를 실시했다. 상점가 인근에 자취하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 야식배달 등으로 매출증대를 꾀했다.

이후 뚝섬역상점가와 무학봉상점가에도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 서비스를 실시했다. 공공근로 투입을 통한 배송서비스 지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는 서울시 공모사업인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서비스' 사업이 뚝도시장,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한양대 앞 상점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말까지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송인력 5명, 콜센터 인력 3명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과 상인들 양쪽 모두 기존 민간 배달업체를 이용하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청과류·건어물에서 족발 등 포장음식까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품목을 간편하게 전화 한통으로 주문해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방문객이 감소함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소비문화가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를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연구원 "농촌일자리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해야"

평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청년농업인 창업지원·육성 방안 마련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구현'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강원도는 농촌일자리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올해 청년농 창업지원 및 기술·자본 중심 농업구조 전환, 사회적 가치를 위한 농업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안착,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등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이에 대응해 평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지원과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농촌 사회에 우수한 인력과 공동체, 중간지원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촌일자리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올해 도는 '미래주도형 농업·농촌 신모델 구축'을 비전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미래 신성장 산업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관련 예산은 총 2949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미래농업인 육성과 농촌복지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경영 안정체계 구축, 농식품 유통 혁신 및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가소득 선도 행복농촌 건설, 축산업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 가축질병 청정화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6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도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농민수당 지원에 앞서 도민 전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한 분위기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로컬푸드 중심의 지역내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위해 도내 18개시·군 연계 강원도 푸드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기 검증된 우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정 강원으로 대표될 수 있는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

해양 수산의 경우 도내 어업인 감소, 고령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촌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전문지원조직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

양식업의 대기업 진입 허용은 새로운 산업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동참을 통한 상생이 필요하다.

박재형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 수립과 농촌지역 거주 청년들의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청년농업인 유입 촉진과 자립여건 제고를 위한 농촌일자리 통합 지원시스템 등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본격화

충남도의 오랜 숙원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작된 건립 계획이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특히 그동안 대형 전시·회의 인프라가 전무한 충남지역에 처음으로 건립되는 컨벤션센터로서 그 의미와 중요도가 남다르다는 의견이다.

위치는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민선7기 도지사 공약으로 조성 중인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직접지구이며 총 연면적 5만 1800㎡(전시시설 9000㎡, 회의시설 4768㎡)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도는 당장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국제행사 유치로 지역방문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동시에 지역 이미지 제고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성·비수기 관계없이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도는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올해 하반기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 2023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병락 도 미래산업국장은 "컨벤션센터를 전시와 회의, 투자를 연계한 B2B전문 산업지원형 컨벤션센터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방문 관광객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충북 증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5일 좌구산 휴양랜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였다.

좌구산 휴양랜드는 지난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봄꽃이 만개하면서 코로나19에 지친 상춘객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2000여명이 방문하기도 했다.

군은 고심 끝에 휴양공원 사업소 직원이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행 간격 2m 유지 지도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도 내걸었다.

명상구름다리, 바람소리길, 별천지공원, 삼기저수지 등 많이 찾는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도 강화하는 코로나19 예방을 강화했다.

김의응 휴양공원사업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답답해하지만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지난 5일에서 오는 19일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강조 했다.

오유나 기자

벚꽃 구경중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벚꽃 사이로 산책을 하고 있다.

국가지정 김제 삼성생명 전주연수소 26일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마무리

국가지정 전북 김제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환자들 전원이 퇴소한다. 지난 3월 11일 169명의 입소가 이뤄진지 26일만이다.

지난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남아있던 25명의 경증환자 중 11명이 완치 퇴소하고 아직 증상이 있는 나머지 14명은 경북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그동안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서는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환자 169명(남성 68명, 여성 101명)이 치료를 받아 왔다.

당시 이들은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고 모두 자가 격리 상태에서 김제로 이송됐다.

입소 일주일 만인 3월 17일부터 환자 일부가 속속 완치 판정을 받아 대구로 돌아갔고 5일 전원이 퇴소한 것이다.

지난 26일 간 전북도는 도 자치행정과장을 현장 연락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소방인력 상주, 구급차 1대 근접 배치를 통해 위급 환자 발생 시 전담병원으로 즉각 이송하는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북도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통해 환자들이 속속 완치됐고 치료센터 운영도 잘 마무리됐다"면서 "최근 코로나19 국면이 진정세에 들었다고 하지만 다시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 극복 의지 담아 '영산홍' 200주 심어

서울 영등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희망의 뜻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수목을 식재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식목일을 맞아 계획하던 나무심기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문래근린공원에 새로 영산홍 200주를 식재했다.

구 관계자는 "영산홍의 꽃말인 '희망'처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문래근린공원에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문래근린공원에서 문래동에 사는 가족, 청소년들과 함께 땅을 파고 영산홍 나무를 심은 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작업까지 마쳤다.

향후 구는 물주기, 잡초 제거, 손상된 수목 새로 심기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며 주민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수목인 영산홍을 식재했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 경희대와 관광두레사업 순항

충북 괴산군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관광두레사업이 순항중이다.

지난 5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사업체와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의 협약에 따라 '관광장소 관리 프로젝트'를 정규수업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 수업은 △지역진단 보고서 △주민사업체 사업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지난 3일 열린 수업에는 관광두레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영균 PD가 참여해 경희대학교 학생과 대학원생, 외국인 교환학생, 서울대 교류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관광두레사업의 내용과 참여 주민사업체별 추진사업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현안해결과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희대는 △사업 아이디어 제안 △경영 컨설팅 △지역 활성화정책 제안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으로 주민사업체를 도울 예정이다. 군은 지역사회 현안을 제시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정책 수립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학과의 협업으로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